

지역 소식통



정읍시, 시청 본관중앙홀 리모델링

정읍시가 시청 본관 중앙홀을 리모델링(remodelling)한다.

실시설계를 마쳤고, 이달 초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가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중앙홀이 건립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노후돼다 다소 어수선한 각종 배치물들로 분위기가 어둡다"며 "리모델링을 통해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사기간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간 중 시청 본관을 방문할 때에는 측면과 안전 유도선을 이용, 출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보건소, 음식점 대상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유무 점검

정읍시보건소가 한국의식업 중앙회 정읍시지부와 함께 음식점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유무를 점검하면서 적극적인 홍보와 가입 독려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월 8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됐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재난 유발자의 배상책임 원칙을 확립하고,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대상은 숙박시설과 주유소, 정예식당, 1층 음식점 등 19종 시설이다. 정읍에서는 모두 627여개가 해당되는데, 이중 일반 음식점(다중이용업소)을 제외한 음식점 중 100㎡이 가입 대상 시설의 63.7%인 400여 개소에 달한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해당 업소들의 가입을 대상으로 이달 3일부터 14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유무 점검과 함께 보험 가입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는 것은 영업주의 자발적 가입 유도를 위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며 "민일의 사태 발생 시 고객 보호와 영업주의 배상 능력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보험인만큼 기간 내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소통 · 공감 · 동행 전파”

김종규 부안군수, 취임 3주년 맞아 “오복행정 구현 행복도시 구체화”



김종규 부안군수는 “700여 공직자와 군민들과 함께 한 부안의 미래를 위한 소통·공감·동행 행정을 실행해 온 것의 보람을 느낀다”고 취임 3주년을 맞아 언론인과 간담회에서 밝혔다.

김군수는 전국 최초 五福정책 선포·福기케팅 정책브랜드화 등 10대 성과와 눈부신 복 짓는 부안 복 받는 군민 오복정책 구현 행복도시 부안 구체화와 막힌 곳은 뚫고 휘어진 곳은 바로 펴는 행정을 펼쳐왔다고 강조했다.

김군수는 특히 4년 연속 예산 4000억원 시대 달성(예산 5000억 원 시대 개막, 거리형 축제 전환 부안오복

마실축제 성공 개최, 전국 최초 대학 신입생 1학기 반값등록금 시행 등 굵직한 성과들을 창출하면서 지역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고 새로운 미래 천년의 비상을 이끌어 왔다.

또 김군수는 민선 6기 4년차를 맞아 해쳐줄 빛나도록 지속해야 할 성과를 되돌아보고 감춰질 수치 않고 흘려가야 할 방향과 산처럼 의연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점검해 막힌 곳은 뚫고 휘어진 곳은 바로 펴 복 거꾸만 부러만복(福氣扶安 扶來福·복이 부안에 살고 있으니 부안에 오면 오복이 가득하다) 실현에 집중했다.

이와 함께 부안 정명 600년의 역사 재조명으로 일궈낸 정신을 발화했으며 선진교육 부분에서는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전국 최초 대학 신입생 1학기 반값등록금 시행으로 전국적 스포트라

이트를 받았다.

거리형 축제로 전환한 부안오복마실축제가 비약적인 성공을 거둬 50만 명이 찾고 전북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는 등 관광경쟁력을 강화했으며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왔다.

여기 에다 줄포가족호텔, 곰 소다용도부지 매각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를 마련했으며 뽕 비빔밥·참뽕젤리 마스크 팩·그라주, 해삼을 비롯한 앵거 상품 발굴과 6차 산업 거점마을을 조성으로 농부도시의 기틀을 다지는 등 농수축산업 부분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고 마을과 도로, 하천, 상·하수도 등 잇따른 공모사업 선정으로 민생기반시설을 확충해 군민이 행복한 부안 만들기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안=이옥수기자

6차 산업 활성화 삼락농정 비전 실현 ‘총력’

정읍시, 전북도 핵심 농정시책 목표 따라

정읍시가 6차 산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으면서 삼락농정 비전을 실현해 가고 있다. 시에 따르면 삼락농정이란 전북도 핵심 농정시책으로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지킴 찾는 농촌이 목표 비전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역 농식품과 문화와 관광 등의 자원을 기반으로 농산물 생산과 가공, 판매·체험·관광이 연계된 농식품 6차 산업 활성화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농식품 6차 산업화 사업 대상자인 선농(주), 사회적기업인 신영과

유기농비건, 우리누리문화생물관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삼락농정을 구현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선농은 유기농 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신대인 천다미를 주요 생산물인 유기농 포도를 활용한 포도아이스크림 만들기 및 열대과일 체험, 소세지 만들기 등의 체험은 물론 판매에서부터 문화, 관광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정읍지역 대표적 사회적기업인 신영은 유기농 고추장 만들기 및 채소 수확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유기농비건도 모내기와 벼 수확

체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우리누리문화생물관은 전통예절과 전통 식품 만들기 등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과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시는 “비록 농촌체험 융복합 산업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 마인드 제고와 실천 유도, 6차 산업 인증업체와 연계한 농산물 판매 확대, 사람을 우선하는 농산물 생산과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삼락농정 비전을 실현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업체들은 연말까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신청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539-6142)에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자동심장충격기 추가 설치 응급의료체계 구축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비 7500여만원을 투입해 고창군청 등 28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추가 설치하여 선도적으로 응급의료체계 구축하고 있다고 3일 전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장정지와 같은 위급상황 발생 시 심장상태를 분석하고 전기 충격으로 심장기능을 회복하도록 도와 환자의 소생률을 높여주는

의료장비다.

추가 설치된 장소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읍·면사무소 14개소와 체육시설 7개소, 작은 목욕탕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선도적으로 설치했다.

이로써 기존 설치 기기를 포함하여 고창군 관내 총 78대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 운영 중이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전폭과대학과 연계하여 인공호흡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법을 실습위주 교육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보건소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 및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 외에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 교육을 더욱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기자

김생기 정읍시장 “남은 1년 시민 모두 행복한 정읍 만들어 가겠다”

정읍시는 3일 민선 6기 3주년 기념 청원 조화를 가졌다.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사에는 6급 이상 전 직원이 참석해 지난 3년 간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시정 발전 방향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김생기 정읍시장은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정읍 발전에 큰 획을 그은 뜻깊은 시간들이었다”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소임을 다해 준 공직자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제정 건전성 강화와 지방채 제로 실현, KTX 본격 개통, 서남권 추모공원 개원, 정읍 장학숙 건립, 브랜드 골목시골 (유니원시스 유치,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내장산리조트 골프장 조성사업, 구절초 향토자원 진흥특구 지정, 3대 국책연구소 인프라 확충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한 “지난해부터 인구 15만 회복을 목표로 다양한 인구 회복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행자부에서 주관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공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등 18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정읍 인구 15만 시대 회복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또 “우리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다. 이 모든 사업들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려 정읍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읍을 다해 일궈 나가겠다”며 “남은 1년 동안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시민 행복 중심의 시책을 발굴함으로써 시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행복한 정읍을 만들어 가겠다”고 피력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박우정 고창군수 “민선 6기 알찬 결실을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

박우정 고창군수가 민선 6기 취임 3주년을 맞아 향후 군정 운영 방향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전 다짐의 날 행사에서 박 군수는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군정성과를 소개하고 그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남은 임기도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군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선 6기 고창군이 안정적이고 순조롭게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뚜렷한 목표 아래 공직자와 군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은 덕분”이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오직 고창군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선 6기 4년차를 맞아 국도 23호선(홍덕-부안간선 등) 미래를 여

는 사통팔달의 SOC구축과 내륙자원, 해안자원, 문화자원을 연계·결합한 생태관광벨트 조성,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의 현명한 이용을 통한 명품 생태관광도시 완성, 6차 산업의 메카로 지속가능한 농축수산물경관기반 조성 등 지역의 고른 발전 등 지금까지의 성과를 발판삼아 더욱 알찬 결실을 위해 군정 비전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군수는 “고창군이 가진 복 받은 자원을 잘 가꾸고 다듬어 알찬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힘차게 될 것”이라며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며 시계절이 즐거운 자연이 만들어 준 한국인의 본향으로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늘 군민과 함께하며 진심을 다해 고창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 주산면, 재난대비 재해예방 현장행정 펼쳐

부안군 주산면이 장마철 이후, 강풍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 및 주택 주변에 위치한 재해 위험지역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재해대비에 발 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주 산면은 재충남면장을 비롯하여 전 직원들이 돈계리 중 산 마을의 한 주택 인근의 고사목 6그루를 굴착기를 동원해 제거하는 등 주택 피해 및 인명사고 예방과 더불어 차도 인근으로 옮겨져 있는 대나무를 굴착기를 동원해 사전에 제거해 교통사고위험을 해소하고 농어촌 버스,

차량, 농기계 운행 등을 원활하게 해 주민안전생활 도모에 앞장섰다.

한 주민은 “나무가 주택에 쓰러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까 불안했는데 면에서 사전에 나무를 제거해줘 고맙다”고 감사를 표했다.

재충남 면장은 “찾아가는 러닝 맨 현장행정을 강화해 주민안전을 위해 장마철 재난 대비를 철저하게 할 계획”이라며 “생활 속 불편사항이나 재해위험상황 발생시 언제든지 면사무소로 연락을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ottle of wine and a smaller image of a gift se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Experience the true taste of mulberry wine with Buan Gangsan Myeongju). It lists various gift sets with prices and includes a cartoon bear mascot.